



전주교대, 도서관 시설확충기금 기탁식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일 총장실에서 도서관 시설확충기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제1회 전주교대 동문·퇴직교수로부터 각 50만원씩 총 200만원과, 제1회 동창회로부터 300만원의 기금을 기탁 받았다.

기탁 대상자인 전주교대 1회 동문이자 퇴직 교수인 김형호 교수, 신성훈 교수, 강원근 교수, 이원 교수는 전주교대를 졸업 후 교수로서 초등교원 양성을 위해 헌신해왔다. 이들은 기탁식에서 "100주년 기념 신축 도서관 건립 소식을 듣고 대학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기금을 모았다"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전주교대는 시설 확충 기금 모금 활동인 '네이밍 캠페인'을 통해 기부자의 이름을 개축 도서관 층별 공간과 가구에 새겨 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고귀한 뜻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병춘 총장은 "큰 애정과 관심으로 대학 발전과 후학을 생각하며, 대학과 오랜 인연을 이어가 줘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탁 덕분에 미래를 이룰 학생들이 좋은 학습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연수원, '문화와 소통 연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3일 왕의지빌 컨벤션센터에서 교감 없는 학교의 부장 교사들을 위한 '문화와 소통이 있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음악과 함께하는 힐링 세션'에서 음악과 악기를 활용해 교사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윤예지 바이올리니스트와 월드 음악 밴드 '코르타도'가 참여해 세계 음악 기행과 감미로운 연주를 선보였다.

이어진 '교육감과의 공감 토크'에서는 업무 경감 방안, 교감 역할 분담, 청렴 업무 개선 등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고민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경찰서, CCTV 관제센터 요원에 감사장 수여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에서는 자살기도자의 차량 동선을 신속히 파악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는데 기여한 정읍시청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게 된 통합관제센터 요원 A씨는 가족에게 신변비관과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차를 운전하여 집을 나간 가솔인의 동선을 파악, 112상황실로 신속한 위치제공을 하여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의 대상자를 조기 발견 하는 등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경찰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는 3일 서장 및 내·외부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진행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최근 3년간 동종 전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청구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사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처분으로 의결했다. /임실=진중영 기자

물 속에서도 강력한 정전기 유지 신소재 개발

전북대 정창규 교수팀·성균관대 방창현 교수팀 공동 연구 성과, 물방개 다리 미세구조서 '영감'

전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정창규 교수 연구팀과 성균관대학교 화학고분자공학부 방창현 교수 공동연구팀이 물속에서도 강력한 정전기를 유지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했다. 이 소재는 마찰전기 기반 원격센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창규 교수



방창현 교수

이 연구팀은 물속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힘을 발휘하는 물방개 다리에 주목했다. 이 다리에 존재하는 미세 빨판 구조를 모사한 것이다. 물방개의 다리에는 아주 작은 빨판처럼 생긴 구조가 있는데, 이 때문에 물속에서도 강력한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구조는 평평한 윗부분과 좁고 긴 아래 부분이 진공공간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모양임을 발견했다. 미세한 구조가 마치 작은 '뿔어뿔'처럼 생겼다는 데서 신소재

의 답을 찾아 낸 것이다.

전북대·성균관대 공동연구팀은 이러한 생물체 표면의 미세구조를 이용해 정전기적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이 미세구조를 모방한 신소재를 개발했다. 이 신소재 표면은 높은 물리적 접착력과 함께 표면 간 반데르발스 결합 증강에 힘입어 향상된 정전기력 특성을 보였다.

이 미세구조가 임의의 반대쪽 표면에 있는 전자를 효율적으로 받아내고, 최종적으로 더 많은 마찰 정전기를 유도한 것이다.

연구팀은 정전기 향상 원리를 이용해 터치 센서 및 에너지 모으는 장치인 에너지 하베스터에 적용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

정창규 교수는 "생체모방표면이 기계적 접착력 증대뿐만 아니라 전기적 힘을 증강할 수 있는 원리를 밝힌 첫 연구"라며 "이 결과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마찰전기 기반 원격센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팀도 더 높은 완성도를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5층 회의실에서 (사)전북자율방범연합회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전북교육청-전북자율방범연합회 협약

학교 주변 안전 강화·학폭 예방 노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일 5층 회의실에서 (사)전북자율방범연합회(회장 경세광)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경세광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전북자율방범연합회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봉사를 실천하는 단체로, 현재 전북에는 15개 자율방범연합회, 288개 자율방범대 1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지원 노력 △학교 주변 안전 강화와 학교 폭력 예방 노력 △학생 보호 및 선도를 위한 홍보 활동 전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세광 이사장은 "전북지역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범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로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 사랑의 땀감나누기 행사 성황리 마무리

산림조합, 취약계층 33가구에 땀감 50톤 전달

순창군이 3일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의 따뜻한 참여 속에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풍산면 소재 감식초 공장 부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군 산림부서, 순창군 산림조합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순창군 산림조합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조합은 사전 산물 수집과 땀감용조제 작업을 맡아 순조롭게 행사를 이끌었으며, 각 기관 직원들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33가구에 약 50톤의 땀감을 전달했다.

김정생 조합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나눔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산림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로 취약계층에 땀감을 지원할 수 있어 감사하다"



순창군이 3일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의 따뜻한 참여 속에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며"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대 원민 초빙교수, 브랜딩 관련 도서 출간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원민 초빙교수가 브랜딩의 기초 이론부터 실전 전략까지 다루는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하는 힘, 브랜딩'을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도서는 개인의 가치와 이야기를 브랜드로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으로 '브랜딩'의 중요성을 강조한 도서로, 창업 준비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미 기업을 운영 중인 기업가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브랜딩의 핵심 이론, 세계적인 브랜드의 비밀, 내만의 브랜드 만들기 전략,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성장하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저자인 원민 교수는 "오늘날 누구나 브랜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 도서는 그런 관점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전략과 이론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장수경찰서, 연말연시 교통사망사고 예방 캠페인

2024년 갑진년의 해가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장수경찰서(총경 김홍훈)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연말연시 교통사망사고 예방등을 위한 도내 일제 캠페인을 장계사거리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슬로건은 '안전운행!!', '안전보행!!' '으로서 교통사고는 운전자 뿐만아니라 보행자들과 함께 경각심 제고와 안전을 확보하여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였다.

이날에는 경찰서장을 비롯한 교통경찰, 지역경찰 20여명은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운행, 보행자들에게는 서다·보다·걸다의 보행 3원칙을 각 강조하는 맞춤형 홍보를 겸하였다.

김홍훈 서장은 "연말연시 들뜬마음에 함부로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소·시간불문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소방서,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무주소방서는 지난 3일 음식점 주방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K급 소화기의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과 같이 화기와 기름을 자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주방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뿌릴 경우 화재가 오히려 커질 위험이 있으며, 일반 분말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일시적으로 화염을 진압할 수는 있지만 기름의 내부 온도를 낮추지 못해 재발화의 가능성이 크다.

K급 소화기는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식용유 표면에 유막층을 빠르게 형성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낮춰 재발화를 방지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소방서는 주방이 설치된 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K급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적극 비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백산면 복지기동대, 연탄 나눔 봉사활동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백산면복지기동대 대원과 직원 등 10여명이 수록리 산치마을에 사는 취약계층에 연탄 300장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실시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부랴문 의명의 기부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기로 추진했으며, 백산면 복지기동대원들과 면 직원들은 연탄을 차에서 내려 대상자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정찬일 백산면장은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많을것으로 생각된다"며 "올 겨울 난방에 취약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공덕면, 어려운 이웃 위한 연탄 배달

김제시 공덕면 행정복지센터는 3일, 겨울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부받은 연탄 300장을 직접 배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탄 기부 및 배달 행사는 면 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연득)가 함께 참여해 진행됐으며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 올겨울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가 추운 겨울을 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상현 공덕면장은 "추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계속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